

■ 연극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상반기 연극분야
- 회의일시 : 2018. 06. 12(화) 15:00~18:3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2018년 상반기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연극·뮤지컬)의 총 지원건수는 177건으로, 이중 144건이 선정되어 81%의 선정률을 기록했으며, 지원결정액은 919,204,000원이다. 지원건수 177건 중 16건(9%)이 사전 서류심사단계에서 탈락했는데, 지원공고에 제시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신청포기, 신청주체오류 등이 그 사유였다. 이들을 제외한 161건이 본선 심사대상이었으며, 심사위원들은 기 공고된 세 가지 심사기준(공연작품의 예술성 40%, 공연단체의 역량 3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에 따라 엄정한 심사에 임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세 가지 심사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예술창작역량강화'라는 대의에 토대를 두고 제출서류와 지원자들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도모했다. 그 종합적 판단에 작용한 추가적 심사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인구대비 문화향유기회와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관극문화 진작과 창작활동격려 차원에서 일정한 안배를 적극적으로 고려함
- 대관료 지원 경력이 있거나 수차례 재연된 공연은 자활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고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함
- 다른 지원금을 받은 공연 중에서 지원금 대비 총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해 감점을 부여함
- 6개월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공연제작비 중 대관료를 보전한다는 지원 제도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좀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
- 연극과 뮤지컬 지원액 배분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액 지원작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지원을 결정함
- 이전 심사에서는 상업성·대중성 강한 공연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나, 금번 심사위원들은 대중성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중성과 예술성이 상호배타적인 지도 불확실하며, 일부 장르는 대중성 자체를 예술적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런 공연도 문화생태계의 구성주체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기준으로 삼지는 않음.